

김용익 가까이... 더 가까이...

October, 2016 | 김소영 전시기획, 출판편집자

page 1 of 2

CRITIC

김용익 가까이... 더 가까이...

9.1~11.6 일민미술관

김소영 | 전시기획, 출판편집자

〈가까이... 더 가까이...전〉은 1970년대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작가 김용익의 40년 동안의 작업을 전시한 대규모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회고전'이라 보아도 무방할 만큼 김용익의 초기 작업부터 최근작에 이르는 시기별 주요 작품들을 소개한다. 나아가 '회고전'이 한 작가의 작품을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거나, 매체별로 구분하는 전시가 아니라 작가의 작업관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짚어내고 작가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전시 방식이라면 이번 개인전의 경우, 지금까지 김용익의 활동 중에서 어느 곳에 방점을 두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적절하게 전시되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전시는 크게 총별로 작가 김용익의 작품을 구분하고 있다. 전시장 1층에는 작가의 초창기 작업인 〈평면 오브제〉와 〈무제〉 등이 설치되어 있고, 2층에는 소위 '땡땡이 그림'이라 불리는 캔버스 작업을 비롯해 〈가까이... 더 가까이...〉와 〈절망의 완수〉 시리즈를 전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아카이브 자료와 최근작인 〈관〉 시리즈를 3층에서 전시하고 있다.

초기-중기-최근작으로 김용익의 작품을 구분한 듯 보이지만, 이번 개인전이 작가의 작품을 단순히

시기별로 나눠 전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작가는 작품의 제작을 어느 특정 시기에 끝내지 않고 끊임없이 수정, 변형, 변경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절망의 완수〉 시리즈의 경우, 작가는 '땡땡이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를 어두운 색으로 덮어버리거나, 덧칠을 하다가도 물감이 떨어지면 그만두기, 그리고 그림 위와 캔버스 뒷면에 글을 쓰고 메모를 남기면서 기존 작품과 완성연도를 수없이 바꾸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작업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못살게 굴거나, 아니면 작정을 한 듯 은폐시켜버리는 김용익의 작업방식은 초기 작품에서부터 우연히 등장한다. 이번 개인전 1층에 전시된 작품 중 3개의 상자를 쌓아놓은 〈무제〉가 그러하다. 〈무제〉는 작가가 〈1981년 청년작가전〉에 출품하였던 작품을 2011년 경기도미술관에서 재연한 것이기도 하다. 우선 이 작품을 보기에 앞서 〈평면 오브제〉를 유심히 살펴보자. 청년 김용익은 〈평면 오브제〉 작업의 주요 재료인 천을 상자에 넣은 후, 전시가 끝나고 이를 풀지 않았다. 그리고 천(작품)이 들어있는 상자 3개를 쌓아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했다. 실제 작품이었던 '천'은 상자 안에 있으므로 관객은 그

작업을 볼 수 없으나, 관객에게 작품(천)을 보여주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작가는 모더니스트로서의 한 시기가 끝났음을 '천' 대신 보여주려 했다.

이후 1990년대 초반, 캔버스에 패턴화된 단색의 '원(땡땡이)'이나, 사각형을 그리며 조형성을 탐구하던 김용익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이 원이 그려진 캔버스를 다른 물감이나 물질로 지워버린다. 이 작업이 바로 앞서 언급한 〈절망의 완수〉 시리즈다. 또한 이 작업과 함께 김용익의 〈가까이... 더 가까이...〉 시리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를 연습장 삼아 그 위에 다시 글이나 메모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은 어떤 입장이나 발언을 위한 목적보다는 미술가로서 김용익의 고민과 사유의 흔적, 작업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작가 김용익의 정치적 입장과 행동(Action)이 작품에 직접적 혹은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공공미술'을 하면서부터다. 특히 토건주의적 (재)개발에 대한 비판의식이 그의 공공미술 활동 전반에 깔려있다. 작가는 공공미술이 벌어지는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 같은 자연물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작품으로 활용하거나,

일민미술관 3층 전시장 전경



사진 박용순

현수막이나 사진 같은 매체를 이용해 공공미술 작업을 했다. 1980년대 민중미술의 걸개그림을 연상케 하는 김용익의 '현수막' 작업에는 다소 수위 높은 정치적 발언이 노골적으로 쓰여 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4대강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만든 깃발(현수막과 사진에는 "농업사수, 농업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라고 적혀있었다. 양평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저항하며 만든 깃발을 그대로 가져와 작품으로 전시한 것이다. 그리고 2006년 갤러리175에서 연 개인전에서 보여준 또 다른 '현수막' 작품 <나의 유작은 나의 사진이며 마지막 공공미술은 사진 기증이다> 역시 김용익의 공공미술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일민미술관 개인전은 작가의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공공미술 활동이나 작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작가로서의 행보와 정치적 입장과 행동, 작업방식 등이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때 제작된 작품들(현수막과 사진, 설치물 등이 아카이브와 도록에만 수록된 점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전시장에서 볼 수 없는 이 작품들이말로

김용익의 작업에서 '정치성'이 날것으로 드러나는 중요 작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시기의 작품들은 미술가로서의 삶과 정치성이 맞물렸던 지점에서, 그 어떤 작업보다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작가가 사용한 매체 또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든 설치물 또는 재료값이 크게 나가지 않은 것들, 사진과 현수막 등이었다.

필자는 김용익의 1970년대와 1980년대 작품들과 글, 그리고 현재까지 미술가로서의 행보가 동시대에도 빛을 발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의 공공미술 활동과 작품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정치적 입장, 발언, 행동들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작가 김용익에게, 윤리성과 정치성을 가장 잘 드러낸 공공미술 활동은 권력과 제도에 대한 투쟁이면서



동시에 제도권 미술과 미술계라는 좁은 사회에서 탈주하려는 행위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전'이 한 작가의 일생과 활동, 작품을 훑는다 하여 작가의 모든 작품을 전부 공평하게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민미술관 개인전에서 볼 수 없는 김용익의 작품들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어말로 전시를 소개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은 틀림없다. ●

<무제(1981년 <제1회 청년작가전>)>(가운데) 포장상자에 사진임크 가변크기 1981~2011 위 (가까이... 더 가까이...)(왼쪽) 캔버스에 혼합재료 150×218cm 1996~2013

